
산시성 사회과학원 정기학술교류&장안지식포럼

- (정기학술교류) '일대일로'와 중한산업협력-

- (포럼) 중국 산시성 사회과학원 설립 40주년과 일대일로 장안지식포럼-

2019. 12

제주연구원

1. 출장개요

□ 목적

- 제주연구원과 중국산시성사회과학원은 2016년 8월 MOU 체결로 정기학술 교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 한중 양국의 관계가 회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 기관의 정기학술교류는 한중 지방외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더 나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산시성과의 논의의 장은 새로운 협력기회를 제고할 것임
- 최근 산시성의 성도¹⁾인 시안시(西安市)는 국제화 도시로 더욱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음
 - 일례로 시안시장 리밍위엔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는 중 시안시의 국제적 협력 수준 제고와 민간 협력 사업 추진은 제주지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되고 있음
- 본 정기학술교류 일정 중 산시성사회과학원이 주최하는 일대일로 장안 지식포럼(一帶一路长安智库论坛)에 참석하여, 일대일로의 건설과 발전 전략과 관련된 주제발표를 계획하고 있음
- 본 장안지식포럼 중에는 중국 각 성별 사회과학원의 주요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기틀을 만들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 본 포럼 중 김동전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국과 제주의 역사적, 향후 지향적 연관성을 강연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계화 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을 공유함

1) 중국어로는 성회(省会)라고 부르며, 국가에는 수도가 있듯이, 각 성(省)별로는 성회가 수도의 역할을 함

- 기 간 : 2019년 12월 9일 ~ 12월 12일(3박 4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중국 산시성사회과학원(陝西省社會科學院)
- 여행자 인적사항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이중화 책임연구원

□ 주요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비고&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월9일 (월요일)	제주	시안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제주(13:50, 기점)→도착:푸둥(14:20,경유) →출발:푸둥(17:05,경유)→도착:시안(19:55, 종점) 	출발
12월10일 (화요일)	시안		중국 산시성사 회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연구원&산시성사회과학원 정기학술교류 - 주제: "일대일로"와 중한산업협력 - 장소: 산시성사회과학원 회의실 - 주요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샤오홍(司曉宏) 원장 축하 · 김동전(金東柱) 원장 축하 · 이중화(李中華) 발표 · 페이청룽(裴成榮) 발표 • 좌담회 • 산시성사회과학원 설립 40주년과 '일대일로' 장안지식포럼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샤오홍 (司曉宏) 원장 - 바이관리 (白寬犁) 부원장 - 페이청룽 (裴成榮) 소장 - 왕창소우 (裴成榮) 소장
12월11일 (수요일)	시안		중국 산시성사 회과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와 장안지식포럼 참석 - 발표자: 김동전 원장 - 주제: 일대일로 건설과 발전 전략 연구 	주제발표 (김동전 원장)
	시안	푸둥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시안(19:05, 기점) → 푸둥 도착(20:50, 경유) 	푸둥 1박
12월12일 (목요일)	푸둥	제주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둥 출발(10:15, 기점) → 제주 도착(12:50, 종점) 	도착

2. 출장내용

1) 2019 제주·산시 정기학술교류

개요

■ 정기학술교류: '일대일로'와 중한산업협력

- 일 시 : 2019. 12. 10(화) 9:00~11:30
- 장 소 : 중국 산시성 사회과학원 회의실
- 참여자 : (한국측)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이중화 책임연구원
(중국측)스샤오홍(司晓宏) 산시성사회과학원장, 바이관리(百宽犁) 산시성사회과학원 부원장, 페이청롱(裴成荣) 산시성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 왕지엔강(王长寿) 산시성사회과학원

2) 장안지식포럼

개요

■ 포럼명: 중국 산시성사회과학원 설립 40주년과 일대일로 장안지식포럼

- 일 시 : 2019. 12. 11(수) 9:00~11:30
- 장 소 : 시안시 曲江국제호텔 대강당
- 참여자 : (한국측)김동전 제주연구원장, 이중화 책임연구원
(중국측)산시성 사회과학원 관계자 및 지역별 사회과학원 관계자, 약 200-300명

주요내용

■ 정기학술교류: '일대일로'와 중한산업협력

- 제주연구원과 산시성사회과학원은 좌담회 및 정기학술교류를 진행함

1) 이중화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적 특징과 국제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1,949.1km²의 면적이며, 이 가운데 한라산의 면적은 153km²로 경관 및 청정 보호 등 이유로 실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토지 면적이 제한적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으로써 주요하게 지리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제주지역의 많은 문화는 해안가에 생성되고 다양한 해양 문화가 형성되어 왔음
 - 지리학적인 제한요인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주요도시와 인접한 중심적 위치를 보이고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관광·휴양지로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제주지역 환경적 특징은 대표적으로 해양문화를 들 수 있으며, 진성, 연대, 해안동굴지, 환해장성, 등명대, 영등곶, 원담, 불턱, 용천수, 해녀항일운동 등 다양한 문화자원이 존재함
 - 이러한 해양자원문화는 다시 해양관광의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해양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스포츠형, 유람형, 휴양형으로 구분하여 고려할 수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차원의 해양문화자원 사업을 들 수 있음
- 제주도는 지리적인 열위와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시간 협의 및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였으며, 이에 대해 자치모범도시 육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 2가지 핵심 축을 구성한바 있음

- 또한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중 핵심프로젝트 6개와 전략프로젝트 5개를 구성한바 있음
 - 핵심프로젝트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2단지) 등을 들 수 있음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수정계획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웠는데, 비전은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수립됨
 - 전략은 환경자원 총량 관리라는 전제 조건에서 첫째, 인적자원, 물적 자원, 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6차 산업화, ICT 융·복합화, 녹색성장,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원 유동화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육성 프로젝트 추진을 둘째, 전략으로 구성함
- 향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4차 산업 혁명 등 대내외 메카트랜드 요인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도민 참여단 구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음
- 향후 제주와 산시의 협력은 초기적인 단계로서 주요하게 협력 프레임을 면밀히 구축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문화·정책·관광·청정·산업·교류·기타 등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교류-소통-평가→공동이익 등을 추구해야 할 것임
 - 교류는 민간 교류 기회 제고, 전문가 공동연구 진행 등을 진행하고 소통은 상호 이해 증진과 정책적 노하우 및 사례 공유, 더 나아가 공동의 문제를 탐색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평가는 성과와 애로사항 공유, 문제 진단 및 공동 개선방안 모색을 들 수 있으며, 공동이익은 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정책적·경제적 상호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임

2) 페이청롱(裴成榮) 소장: 일대일로와 산시성·한국의 산업 협력

- 산시성은 실크로드의 기점으로 황하(黃河)중류 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중국 내 중심지에 위치함
 - 상주인구는 3,864만 명으로 면적은 20만 5,600km²에 달함
- 중국의 전국 각 지역 중 과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
 - 사과: 약 1,100만톤, 복숭아 약 150만 톤의 규모에 달함
 - 또한 약재 등 중의약 관련 주요 생산기지임
- 서비스업은 교통, 비즈니스, 요식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33%에 달하며, 관광부문의 직접 공헌율은 약 1,800억 위안의 규모임
 - 최근 산시성의 문화산업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에서 선진제조업으로 전환 시기에 직면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아직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
- 시안은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등 13개 왕조의 고대 수도이며, 상주인구는 약 1,000만 3,700명의 규모임
 - 경제규모는 8,349 억 위안으로 1인당 소득은 5만 5,114위안 수준임
 - 1·2·3차 산업구조는 3.1: 35.0:61.9의 수준이며, 도시형 휴양 농업, 첨단 기술산업, 장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7개 국가급 개발구가 조성되어 있음
- 산시성의 대외전략은 크게 허브경제, 창구경제, 유동경제 등 3가지로 구분 가능함
 - 허브경제는 전국적인 철도망 허브를 구축하고 국제항공 노선의 다각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구경제는 일대일로의 5대 중심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자원의 유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여기서 5대 중심은 교통비즈니스물류중심, 국제산업협력중심, 과학기술 교육중심, 국제관광중심, 지역금융중심으로 구분됨
- 유동경제는 특수인재발전계획으로 볼 수 있으며, 과학원 워크스테이션, 포스트닥터 워크스테이션, 기술전문 작업실 및 인재양성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자 함
- 인터넷과 물류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현대물류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시안의 대외전략은 입체적 종합 교통 체계, 다차원적 국제개발개방플랫폼 조성, 현대산업 지원 체계 등 3가지 경제수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관련 정책²⁾들이 수립됨
- 산시성과 한국(제주)의 협력 방안으로 이하 사항이 고려됨
 -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신흥산업을 공동 개척
 - 첨단기술산업의 협력을 통해 신규 투자 협력을 강화
 - 현대서비스업의 심화 협력을 추진
 - 기초설비 등 인프라의 조성의 협력수준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협력 플랫폼을 조성

2) 全面贯彻新发展理念 加快国家中心城市建设 推进枢纽经济门户经济流动经济发展工作方案(2020-2022年)
西安市关于加快建设先进制造业强市的实施意见(2020-2025年)

<정기학술교류회 현장>



■ 중국 산시성사회과학원 설립 40주년과 일대일로 장안지식포럼

1) 송홍(宋泓)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부소장

주제: 중국의 대외개방과 일대일로 건설

- 1970년대 중국의 대외무역 관계는 개혁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는 개혁 개방의 초기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1990년대, 2000년대 들어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중국의 우위와 충격에 공존하는 상황을 직면하였음
 - 중국과 서양의 관계가 조정되고 일대일로가 제시됨에 따라 일대일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협력과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세계경제에서 선진국의 점유율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과 중앙아시아의 일대를 연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해상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제시한바 있음
 - 향후 중국과 서양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일대일로를 통한 국제적 규칙과 체계 등이 더욱 융합될 것임
 - 일대일로 정책 추진 과정 중 중국의 측면에서 비용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할 것이며, 연선국가의 측면에서 현지의 성장문제, 경제적 통합, 상환능력, 채무수준 등 문제 역시 출현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유럽 및 미국 간의 관계가 조정될 것이며, 무역 규모 역시 변화할 것임
 -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 역시 출현할 것이며,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역시 약 15% 감소할 것이 전망됨
- 향후 10년을 전망하자면,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자체적인 조정으로 인한

국제관계의 변화 및 중국과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의 기여도 증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북미 지역의 지역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해지역부터 시작을 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중서부지역으로 인재 이동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서부지역에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유럽 국가로의 연계성 제고와 아세안, 나아가 아프리카에 대한 주도형 투자 역시 필요함

2) 리호우치양(李后强) 산천성사회과학원 당서기, 교수

주제: 친링(秦岭)산맥을 초월한 쓰촨성과 산시성의 협력 방안

- 산시성과 쓰촨성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문화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리적인 근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쓰촨성과 산시성의 인민들은 친한산맥을 넘어 바오시에다오(褒斜道), 천창다오(陳倉道)를 통해 교류를 시작함
 - 현재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적교류, 물류, 정보교류 등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쓰촨성과 산시성은 혁신발전을 공동의 목표로 중국의 혁신에 중요 역량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
- 쓰촨성과 산시성의 경제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여, 협력의 공간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2018년 산시성의 GDP는 2만 4,400억 위안으로 서북지역의 총 GDP 중 47.5%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쓰촨성의 GDP는 4만 600억 위안 수준을 보여, 서남지역의 총 GDP 중 42.7%의 비중을 점함
 - 게다가 관광산업 자원이 많고, 중심도시의 규모가 크며, 효율적인 교통 설비, 관광자원의 다양화, 업그레이드된 산업구조, 우수한 역사문화,

지리적인 인접성, 혁신적 정책의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 가능한 공간이 존재함

- 향후 쓰촨성과 산시성은 사상, 생산요소, 협력, 의의, 혁신 등 5가지 측면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제도적 장벽, 교통장벽, 협력문화 형성, 노하우 공유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것임

3) 씨아친원(夏锦文) 지양수성사회과학원 당서기, 원장

주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상호윈윈 개방 체계 건설

- 중앙정부의 19차 4중전회 중 전면적인 개혁을 강조하였으며, 주요하게 공동협력을 통한 상호 WIN-WIN 체계를 위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동성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더욱 승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됨
- 중국 개방형 경제모델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FDI 유치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증가, 중국굴기의 세계 경제 기여도 상승, 반세계화 사상의 해소, 선진국가의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참여 등 다양한 가치를 재생함
-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개방에 대한 의미는 다자무역을 권장하고 더욱 높은 개방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국내외 융합형 발전 계획, 공동성장형 개방전략 및 공동체 구축으로 들 수 있음
 - 특징적인 측면으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중시하고, 해외투자를 격려하며, 제도적인 개방, 연해지역의 전면 개방, 제도혁신 시험, 세계경제정책 관련 발원권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 일대일로 의 효율적인 발전과 협력을 위한 개방체계 건설에 있어, 이념과 발전방향, 기준, 신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적합한 수익과 공평성, 다원화, 포용적 질서 등의 국제적 신질서가 조성되어야 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공동상의, 공공건설, 공동향유를 원칙으로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개방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한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원칙을 기준하여 협력체계 및 개방체계에 대한 논의 및 확대가 필요할 것임

4)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 교수

주제: 중한문화교류와 지방정부 협력 방안

- 제주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진나라, 한나라시기에 이미 교류가 진행됨
 - 진나라시기에는 서복이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으며, 제주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서복전시관이 조성되었고, 2005년 7월 22일 시진핑 주석이 절강성 당서기 시절에 참관한 바가 있음
 - 한나라시기에는 철기 문물이 해상통로를 통해 제주로 유입되기도 함
- 제2차 일대일로 국제고위급포럼을 살펴보면,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며, 논의 주제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음
 - 2019년 제2차 포럼 중에는 청렴실크로드, 디지털실크로드, 녹색의 길, 혁신의길, 대외경제협력구축, 지방협력 등 새로운 세션이 진행되어 논의의 수준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지방분권을 두가지 핵심으로 국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존과 스마트 제주를 제시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과로 2001년 대비 인구는 123.6%, 관광객 규모는 348.2%, GRDP는 375% 증가하였으며, 2019년 국무조정실의 평가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부문의 평점은 86.5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대내외 트렌드, 도민참여, 신성장동력 산업 촉진, 실증에 근거한 계획 수립 등을 목표하고 있음
- 협력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차원과 지방차원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임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25일 부산에서 제3차 한국·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추진되기도 함
 - 지방차원에서 고려 가능한 사안으로 2012년 추진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주목할 수 있음
 - 2019년 8월 10일, 시안에서 제주의 도립예술단이 방문하여 문화교류 관련 예술 공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안시 시장은 세계지방정부연합의 공동의장으로 선정된바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제주와 중국 지방도시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및 문화교류의 확산을 기반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그리고 지방협력이 연계되어야 할 것임
 - 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지속성, 연계성, 체계성, 공통성 등 주요 전략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5) 구멍빈(谷孟宾) 산시성사회과학원 금융투자연구소 소장

주제: 일대일로 건설과 지방의 실천과 추진을 위한 제언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은 주요하게 3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국제적측면: 세계적으로 공공물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 국가적측면: 신시대 중국의 전방위적 개방에 지침적 역할
 - 지역적측면: 중국 내 각 지역의 공동적 개방,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플랫폼이 필요함
- 각 지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참여와 관련하여 몇가지 특징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12·5규획, 13·5규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시험구, 신구, 자유무역구 등이 다양하게 조성됨
 - 둘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 중 각 지역은 자기 지역의 위치를 설정함
 - 셋째, 각 지역은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주도적 열정을 보임
 - 넷째, 각 성(省)간, 지역간 협력수준이 경쟁수준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 지방참여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부지역 내륙과 해양 부분의 통로개통 사업을 들 수 있으며, 신시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부지역의 대개발모델과 전략적 통로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일대일로 건설에 대하여 국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참여 관련 이하 몇가지 건의를 제안함
 - 첫째, 러시아, 파키스탄과의 협력구역 조성
 - 둘째, 아세안, 10+3, 10+6 등 기회구역 조성
 - 셋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몽고와 안정구역 조성

- 넷째, 중국과 동유럽 17+1,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성장구역 조성
 - 다섯째, 서유럽과 난관돌파구역 조성
- 국내지역 협력 측면에 있어서는 일대와 일로의 통로 건설에 있어 상호 이용과 상호이익이 전제되어야 함
- 게다가 더욱 전략적이고 대형산업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 투자합작, 자금융통, 민신상통 등이 기초되어야 함

<장안지식포럼 현장>



3 시사점

- 산시성 사회과학원은 시안지역이 육상실크로드의 기점인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 도시로 더욱 발전하고자 여러 영역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교류 확산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연계성을 연계해야 할 것임
 - 제주지역과 시안지역의 상이한 산업구조로 인한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는 소프트한 영역의 교류 및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산시성은 일대일로라는 거대 정책 하에 지역간 협력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기학술교류 및 포럼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 내 31개 지역별 사회과학원의 협력 및 논의가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의 기회 및 시너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음
- 이는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국과 동일하게 지방의 참여가 연계될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함
 - 즉 중국의 경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정책 추진에 있어, 주체가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 역시 동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하고자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 및 국내 지자체 역시 신남방·신북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제주지역이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과를 더욱 제고해야 함
- 또한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간 협력 수준 제고를 통해 일대일로와 신남방·신북방 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 역시 모색되어야 할 것임